

예 : 장도빈(張道斌) 이 56자
李舜臣傳
이은상(李殷相) 이 56인
李忠武公一代記
해군사관학교, 총무공연구위원회 이 56하
忠武公李舜臣/민족의 햇불

조성도(趙成都) 이 56조
Yi Sun-shin, a national hero of Korea, by
Jho Sung-do
(동서와 양서를 혼가하는 도서관입장에서 배진것임)

德水李氏世譜, 李正鉉 編 이 24
(대상어 德水李氏를 “이덕수로” 도치하여 기호화함)

韓山李氏世譜, 李順求 編 이 92
(대상어 韓山李氏를 “이한산”으로 도치하여 기호화함)

延安車氏族譜, 車尙文 編 차2
(대상어 延安車氏를 “차연안”으로 도치하여 기호화함)

2.22 자서전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작—예를 들어 회고록, 일기, 서한문, 등—은 그의 표제에 의하여 부차적 기호를 매기지 아니하고, 자모순으로 초두에 오는 음절—예 : 가, 각, 간, 등—을 임의로 잡아 매겨, 저자를 대상으로 한 부차적 기호보다 앞서 유취되게 조절하여 매긴다.

예 : 이순신(李舜臣) 이 56가
亂中日記

2.23 한 저자가 지은 같은 인물에 관한 전기서가 두 개이상 모일 경우에는 그의 표제기호를 기본기호의 다음 칸(줄)에 적는다.

예 : 이은상(李殷相) 이 56인
李忠武公一代記
이은상(李殷相) 이 56인
성웅 이순신 서

2.24 各傳과 叢傳이 자기 분류번호를 달리 갖지 아니하고 한 분류번호 내에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들 간을 구분해 주기 위하여 叢傳에 대해서 “가1”을 冠記한 다음 그 기입어에 대한 저자기호를 매긴다.

예 :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刊) 가1한16
박익수(朴益洙) 가1박68
世界科學者七十人

2.3 비평·주석·해설·사전·색인·서목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 또는 저작에 관한 批評·註釋·梗概·解說·解題·自習書·指導書·辭典·索引書目 등의 저작은 “나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被評者 또는 원저작을 대상으로 매기는 저자기호를 그대로 취하고, 그옆에 비평·주석·경개·해제 등에 대하여는 “노”, 색인·사전·서목에 대하여는 “π”란 부호를 적

은 다음 그의 저자(비평자 등)나 편자명의 첫자를 부기한다(A안).

그러나 비평·해설部(노)와 사전·색인部(π)와를 구분하기를 원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이를 모두 대쉬(-)로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B안).

	A안	B안
예 : 박계주(朴啓周) 春園李光洙—그의 生涯와 文學과 思想—朴啓周, 郭鶴松 共著	이15노바	이15-바
김동인(金東仁) 春園研究	이15노기	이15-기
김동욱(金東旭) 春香傳研究	춘9노기	춘9-기
조운제(趙潤濟) 春香傳/校註	춘9노조	춘9-조
연세대학교, 동방학연연구소 三國史記索引	김46π여	김46-여
(三國史記의 기본기입을 “김부식”으로 잡았을 경우)		
황수영(黃壽永)· 高裕燮著作目錄	고66π호	고66-호

다만 그 원저작에 대한 저자기호가 이미 표제에 대한 부차적 기호까지 매겨진 것일 경우에는 그 비평자·주석자 또는 편자에 대한 부차적 문자기호를 “노” “π” 또는 “-”란 부호의 선행없이 기본기호의 다음 칸(줄)에 기재한다.

예 : 이재철(李載喆) 튜6튜인
한국에 있어서의 튜이십진분류법

2.4 번역서

번역서는 원저작을 대상으로 한 저자기호와 똑같이 매긴 다음, 필요에 따라 그 기본기호의 다음 칸(줄)에 역자명의 부차적 문자기호를 기재한다.

예 : 김부식(金富弼) 김46산
三國史記, 李丙巖 譯註 인
김부식(金富弼) 김46산
三國史記/完譯, 金鍾權 譯 인

토머스, 벤저민 링8토
아브라함 링컨傳, 安秉煜 譯 아
만약 서양인명의 기입어를 로마자로 잡는 도서관에 서는 :

Thomas, Benjamin P. L713t
아브라함 링컨傳, 安秉煜 譯 아
(원서명 : Abraham Lincoln, a biography)

2.5 판차 또는 출판년도

판차는 숫자화하여 일반적으로 그 저작의 표제기호 다음에 매긴다. 그러나 개인전기서 (2.2 참조) 및 어떤 인물 또는 저작에 대한 비평·주석·색인(2.3 참조), 번역서 등 자체로서의 판차일 경우에는 그 비평자, 주석자, 편자 및 역자에 대한 부차적기호 다음에 판차기호를 매긴다.

예 : 최호진(崔虎鎭)

經濟原論	1954	최95겨
經濟原論/增訂	1957	최95겨2
經濟原論/新版	1964	최95겨3

에이커즈, 수잔 그레이
간이도서관자료목록법, 제4판. 기
김중한 옮김

만약 위의 기입어를 로마자로 잡았을 경우에는 :

Akers, Susan Grey A315s4
간이도서관자료목록법, 제4판. 기
김중한 옮김.

(원서명 : Simple library cataloging)

(동서·양서를 혼가하는 도서관입장에서 기호화한 것임)

앞서 들어온 판이 표제 등의 부차적 기호를 갖지 아니하고 기본기호만 가졌을 경우에는, 그다음 들어온 새판에 대하여 기본기호 다음에 “가”란 문자기호를 삽입시켜 판차기호를 매긴다. 표제의 첫자 대신 한글자 모순에서 가장 앞서는 음절인 “가”를 취함은 동저자의 표제를 달리하는 다른 저작이 그 사이에 끼는 것을 막고 판만 달리하는 동 저작을 밀접히 놓기 위함이다.

최95

최95가2

최95가3

판차가 그 최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增訂版, 新版, 新稿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그 정확한 판차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또 판차수가 명시되어 있어도 저작의 성질상 판차수보다 오히려 출판년도로 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는, 판차 대신 출판년도를 기본기호의 다음 칸(줄)에 기재한다. 이때 西紀이외의 紀年으로 표시된 출판년은 모두 西紀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표제 기호를
가졌을 경우

표제기호를 갖
지 않았을 경우

예 :	최95겨	최95
	최95겨 1957	최95 1957
	최95겨 1957	최95 1964
	合同年鑑 1972年版	합2 1972

2.6 권 차

卷次는 숫자로 기본기입의 다음 칸(줄)에 기재한다. 문자로 표시된 권차는 그차례를 숫자화하여 기재한다.

예 : 한글학회 큰사전, 제3권	한17 3	또는 한17크 3
천혜봉(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下	천9 2	또는 천9고 2

複式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차는 그 기호사이를 「대

쉬」(一)로 연결하여 기재한다.

예 : 世界文學全集 第1部 第5冊 卷14
1-5

문자로 표시된 권차의 숫자기호화는 다음과 같다.

卷首는 0

1 2	1 2 3	1 2 3 4
乾 坤	上 中 下	東 西 南 北
本 末	智 人 勇	不 朽 盛 事
上 下	天 地 人	元 亨 利 貞
前 後		春 夏 秋 冬
		欽 明 文 思

1 2 3 4 5	1 2 3 4 5 6
宮 商 角 徵 羽	禮 樂 射 御 書 數
仁 義 禮 智 信	天 地 東 西 南 北

1 2 3 4 5 6 7 8 9 10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鶯 嘴 啄 花 紅 溜 燕 尾 點 波 綠 皺

1 2 3 4 5 6 7 8 9 10
奪 武 揆 文 天 下 無 雙 正 士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鎔 經 鑄 史 人 間 第 一 寄 書

1 2 3 4 5 6 7 8 9 10
天 地 玄 黃 宇 宙 洪 荒 日 月

11 12 13 14 15 16... 1000
盈 昴 辰 宿 列 張... 也

2.7 보유, 추록, 속편

補遺, 追錄, 續篇등은 그의 正篇(원저작)에 대한 자기기호를 그대로 매기고(나 1.24참조), 그 다음 칸에 그에 대한 권차수를 “2”부터 매긴다. 만약 그 正篇이 두권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권차수가 매겨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이은 권차수를 매긴다.

예 : 최요안(崔要安)

마을의 샘터	최65
마을의 샘터/續	최65 2

2.8 복 본

複本—같은 내용의 저작으로 이제까지의 규정에 의해서도 개별이 안되는 도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두번째 이하 들어온 것에 대하여 “2”부터의 숫자 앞에 같은표(=)를 冠記하여 기본기호의 다음 칸(줄)에 매긴다.

예 : 최95가3 한17 세14
 =2 3=2 1-5=2

 합2 이56인
 1972=2 서=2

라. 별치기호

그 자료의 물질적 또는 형태상의 특성이나, 가치 또는 관리면의 필요에서 일반장서(main collection)와 따로 別架 또는 別置하는 集書에 대하여는, 그 자료에 다음과 같은 別置記號(collection mark)를 분류번호의 윗칸(윗줄)에 기재한다.

	<u>기 호</u>
고 서	고
귀중도서	귀
녹음테이프	테
대형도서	대
마이크로카드	마카
마이크로피쉬	마쉬
마이크로필름	마필
소형도서	소형
슬라이드	슬
아동도서	아
악 보	악
음 반	음
점자도서	점
지 도	지
참고도서	참
축차간행물	축 (또는 잡)
필 림	필
필름스트립	필스

사용례 : 참 참
 713 713
 신18 한17
 3

別置記號를 정하는데 있어 주의할 일은, 동서와 양서를 混架하는 도서관에서는 별치기호도 같은 것을 취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동서에 상기와 같은 한글기호를 채용하면 양서도 그 한글기호를 채용해야 되며, 양

서에 로마자로 이루어진 기호를 매기기로 했으면 동서도 역시 그 로마자기호로 매겨야 같은 종류의 집서(collection)가 기계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四. 청구기호의 배열법

請求記號의 배열은 적힌 순차에 좇아 배열한다. 즉 별치기호, 분류기호 그리고 도서기호(저자기호)의 순으로 배열해가면 되는 것이다.

가. 별치기호

분류기호의 배열에 앞서, 먼저 청구기호에 별치기호를 가진 것과 안가진 것과는 양구분하여, 圖書의 경우는 별치기호가 없는 것이 본서고(일반장서)에, 별치기호가 있는 것은 해당 집서를 소장하는 室 또는 서고에 각각 보내고, 書架目錄의 경우는, 별치기호가 없는 것을 먼저(앞에), 있는 것을 뒤에 놓아, 후자는 다시 그 별치기호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나. 분류기호의 배열

분류기호의 배열은 그 분류법에 따라 숫자기호의 배열법이 일정치 아니하다. DDC, KDC, UDC, CC 등의 숫자의 배열은 소수점이하의 숫자와 같이 분류하지만, LC분류법의 숫자기호는 원칙적으로 整數(자연수)의 순으로 배열한다. 요는 그 도서관에서 채용한 분류법의 표상의 기호순으로 좇아 배열하면 된다.

다. 저자기호의 배열

1. 도서기호중의 한 종류인 수입순기호법은 언제나 整數(자연수)순으로 배열하지만, 필자표에 의한 저자기호는, 기본기호로서의 숫자는 소수의 순으로 배열하고(예 1), 부차적기호로서의 숫자는 정수의 순으로 배열한다(예 2), 문자기호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같은 방식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 예 1 : 박13
 박14
 박14과
 박14표
 박145
 박145수
 박147
 박147나
 박15
 박16

예 2 : 김25하 김25하2 김25하3 ... 김25하9
김25하10 김25하11

한16 한16 한16 ... 한16 한16 한16
1 2 3 9 10 11

유78부 유78부 유78부 ... 유78부
=2 =3 =9

유78부 유78부
=10 =11

2. 기입어가 외자로 이루어져 있어, 저자기호를 매기는데 기본기호의 문자기호 다음에 콤마를 찍고 숫자기호를 합성한 것은, 똑같은 문자기호를 가진 것중 콤마를 지니지 않은 것보다 먼저 배열하고, 콤마를 지니지 않은 것을 나중에 배열한다, (나2.8 참조)

예 : 맨,3

맨,9

맨5

3. 동서와 양서를 혼가하는 도서관으로 동서에 대해서는 한글순인 필자표를, 양서엔 로마자순의 Cutter 표(또는 LC표, 등)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문자기호의 배열을 「가나다ABC순」으로 한다. 즉, 가나다순 뒤에 ABC순을 곧장 연결시켜 「가...형 A...Z」순이 되게 배열한다.

五. 기호매김의 별법

필자표에 의한 기호구성, 제3장의 기호매김법과 같이 음절식 문자기호 한자에 숫자기호를 합성하는 기호법도 있고, 음절대신 자모(초성) 한자를 문자기호로 취하고 이에 숫자기호를 합성하는 기호구성도 가능하며, 또 대상어의 첫머리부터 아예 숫자기호화하는 순수기호의 구성도 가능하다. 어느 표에 의한 것보다도 기호구성력에 있어 융통성과 신축성이 강한 셈이다. 필자는 이상의 몇가지 방식중 첫번째 방식을 대표적인 것으로 삼고, 이에 무게를 두어 필자표의 사용법을 발전시켜왔다. 그이유는, 그 음절식기호법이 우리 국어의 용법(usage)에 부합되며, 기호의 짧막성(brevity)을 발음면에서도 가질 수 있고, 有意性을 상당히 띠어 기호로서의 助記性을 좀더 강하게 가지며, 자형상 로마자에 의해 기호화한 것과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이었다.¹³ 그러나 그 도서관이 굳이 자모형의 문자기호

에 숫자를 합성하는 기호법을 택하고자 하거나, 또는 숫자만의 순수기호법을 취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런 식의 기호구성도 필자표에 의해 가능함은 이미 필자의 판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다.¹⁴

이 章은 동 別式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 자모 한자에 숫자기호를 합성하는 방식

1. 표의 조절

이 용도에 가장 적응성이 있는 필자의 표는 제2표와 제3표를 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약간 조절하여 쓰는 것이 좋다.

제2표의 조절표

모 음 기 호	받 침 기 호
1 ㅏ	1 ㄱ ㅍ
2 ㅑ	19 ㅑ
28 ㅓ	2 ㄴ
29 ㅕ	29 ㄷ ㅌ ㅍ
3 ㅗ	3 ㄹ
38 ㅛ	39 ㄷ ㅌ ㅍ ㅑ ㅓ ㅕ
4 ㅜ	4 ㅍ
48 ㅝ	5 ㅑ
5 ㅟ	59 ㅑ ㅓ ㅕ
6 ㅡ	6 ㅑ
67 ㅣ	69 { ㅑ ㅓ ㅕ
68 ㅥ	
69 ㅧ	
7 ㅨ	ㅑ ㅓ ㅕ
77 ㅩ	ㅑ ㅓ ㅕ
78 { ㅫ ㅭ	ㅑ ㅓ ㅕ
79 ㅯ	
8 ㅱ	
88 ㅳ	
9 ㅵ	

13.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p. 228-239(제 V장) 및 p. 224.

14. Ibid., p. 228-229.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p. 15.

—, "한국도서관을 위한 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제11권 제12호(1970년 12월호). p. 373-374.

제3표의 조절표

모 음 기 호	받 침 기 호
1 ㅏ	1 ㅏ ㅏ
2 ㅑ	19 ㅑ
28 ㅓ	2 ㅓ
29 ㅕ	29 ㅕ ㅕ
3 ㅗ	3 ㅗ
38 ㅛ	39 ㅛ ㅛ ㅛ ㅛ
4 ㅜ	4 ㅜ
48 ㅠ	5 ㅠ
5 ㅡ	59 ㅡ ㅡ ㅡ
6 ㅛ	6 ㅛ
67 ㅜ	69 { ㅛ ㅜ ㅠ ㅡ ㅛ
68 ㅠ	
69 ㅡ	
7 ㅏ	
77 ㅑ	
78 { ㅓ ㅕ	69 { ㅛ ㅜ ㅠ ㅡ ㅛ
79 ㅏ	
8 ㅡ	
88 ㅑ	
9 ㅏ	

2. 기본기호의 구성

2.1 대상어의 첫자(초성)를 그냥 문자기호로 채기하거나(A안), 또는 첫자모(초성)에 대표모음 “ㅏ”를 덧붙인 대표적 기본음절을 문자기호로 삼어(B안), 원칙적으로 두째자모(모음)이하 다음 음절의 초성까지를 표에 의해 숫자기호화한 다음, 이들을 합성하여 기본기호로 삼는다. 숫자기호 두째자리 다음에는 언제나 온점을 찍는다.(이하 모든 용례의 기호화는 제3표에 의하였음)

	A안	B안
예 : 남정현	ㄴ14.7	나14.7
문일평	ㅁ72.6	마72.6

2.2 대상어의 첫음절에 받침이 없는 것은 모음기호 다음에 숫자 “0”을 첨부한 다음, 두째음절의 자음기호를 합성한다.

예 : 노영란	ㄴ50.6
고재창	ㄱ50.7

2.3 모음기호가 두자리짜리이거나 받침기호가 두자리짜리일 경우에는 우선 그 모음 또는 받침까지만 기호화한다.

예 : 표문태	ㅍ69
---------	-----

휘트먼 ㅎ68
셋별회 ㅅ25.9

2.4 김, 이, 박, 최, 정, 조, 강, 장, 한, 윤의 우리나라 10대성 및 이와 똑같은 첫음절을 가진 기입어(三나 2.4 참조)는, 윤자를 예외로 하고, 두째음절의 모음까지를 기호화하되, 두째음절의 기호는 조절하지 않은 원표에 의해 매긴다.

예 : 정비석	ㅈ36.49
조지훈	ㅈ50.79
강원룡	ㄱ16.67
김향안	ㄱ94.92

이때 두째음절의 자음(초성)이 두자리기호일 경우에는, 우선 자음기호만을 기호화하고 모음의 기호화는 보류한다.

예 : 김태성	ㄱ94.88
---------	--------

2.5 이상의 기호매김으로도 同番號異記入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의 자모(예 1) 또는 임의의 숫자(예 2)를 하나 덧붙여서 개별한다.(二나2.9 참조)

예 1 : 전재동	ㅈ32.7
전정렬	ㅈ32.73
전종진	ㅈ32.75
예 2 : 휘문고등학교	ㅎ78.3
휘문중학교	ㅎ78.4
김도희	ㄱ94.25
김동리	ㄱ94.255
김동진	ㄱ94.257
일한독서회	ㅇ93.9
읽기모임	ㅇ93.98

3. 부차적 기호의 구성

3.1 표제, 비평자, 역자 등의 부차적 기호는, 그 대상어의 첫자모를 그냥 문자기호로 취하고 (예 A안, B안), 같은 자모기호로 중복될 경우에는, 임의의 숫자 한자리를 더 첨가하여 개별한다. 기본기호의 문자기호로 대표모음 “ㅏ”를 덧붙인 대표음절을 취하는 도서관에서는 부차적기호도 이에 준하여 취할 수 있다(C안). (三나2.1~24 참조)

예 :

이광수(李光洙)	A안	B안	C안
麻衣太子	ㅇ90.16ㅁ	아90.16ㅁ	아90.16마
無情	ㅇ90.16ㅁ7	아90.16ㅁ7	아90.16마7
사랑	ㅇ90.16ㅅ	아90.16ㅅ	아90.16사
삼봉이비집	ㅇ90.16ㅅ5	아90.16ㅅ5	아90.16사5
先導者	ㅇ90.16ㅅ7	아90.16ㅅ7	아90.16사7
사랑의 罪	ㅇ90.16ㅅ3	아90.16ㅅ3	아90.16사3

장도빈(張道斌)

李舜臣傳	○90.57스	아90.57스	아90.57자
이은상(李殷相)	○90.57스	아90.57스	아90.57스
李忠武公一代記			
성응이순신	○90.57스 스	아90.57스 스	아90.57아 사

3.2 판차, 권차, 복본 등의 부차적기호는 整數順으로 숫자기호화하되, 판차기호만은 원괄호로 묶어 표시한다. (三다2.5~2.8 참조)

예 :

최호진(崔虎鎭)		표제기호를 가진 경우	표제기호를 안가진 경우
經濟原論	1954	ㄸ68.95ㄱ	ㄸ68.9
經濟原論/增訂	1957	ㄸ68.95ㄱ(2)	ㄸ68.9(2)
經濟原論/新版	1964	ㄸ68.95ㄱ(3)	ㄸ68.9(3)

나 숫자만에 의해 기호화하는 방식

1. 표의 조절

이 용도에도 제2표와 제3표가 가장 적용해 쓰는데 조절이 간단하다. 조절표는 아래와 같다.

제2표의 조절표

자 음 기 호		모음기호
초성기호	받 침 기 호	
1 ㄱ	1 ㄱ	1 ㅏ
21 ㄴ	19 ㄴ	2 ㅑ
22 ㄷ	2 ㄷ	28 ㅓ
23 ㄹ	29 ㄹ	29 ㅕ
3 ㅁ	3 ㅁ	3 ㅗ
4 ㄴ	39 ㄴ	38 ㅛ
5 ㄷ	4 ㅁ	4 ㅜ
6 ㅅ	5 ㄴ	48 ㅝ
7 ㅈ	59 ㅈ	5 ㅟ
81 ㅊ	6 ㅅ	6 ㅛ
82 ㅋ	69 { ㅈ ㅊ ㅌ ㅍ ㅎ	67 ㅜ
83 ㅌ		68 ㅝ
84 ㅍ		69 ㅟ
9 ㅎ		7 ㅑ
		77 ㅓ
		78 { ㅕ ㅗ
		79 ㅛ
		8 ㅏ
		88 ㅑ
		9 ㅓ

제3표의 조절표

자 음 기 호			모 음 기 호				
초기	성호	받침기호	일반모음기호	ㄱㄷ에 붙는모음기호	ㄷ에 붙는모음		
1	ㄱ	1 ㄱ	1	ㅏ	ㅏ 1		
19	ㄴ	19 ㄴ	2	ㅑ	ㅑ 17		
2	ㄷ	2 ㄷ	28	ㅓ	ㅓ 18		
29	ㄹ	29 ㄹ	29	ㅕ	ㅕ 19		
3	ㅁ	3 ㅁ	3	ㅗ	ㅗ 2		
4	ㄴ	39 ㄴ	38	ㅛ	ㅛ 27		
5	ㄷ	4 ㅁ	4	ㅜ	ㅜ 28		
6	ㅅ	5 ㄴ	48	ㅝ	ㅝ 29		
7	ㅈ	59 ㅈ	5	ㅟ	ㅟ 3		
8	ㅊ	6 ㅅ	6	ㅛ	ㅛ 37		
87	ㅋ	69 { ㅈ ㅊ ㅌ ㅍ ㅎ	67			ㅜ	ㅜ 38
88	ㅌ		68	ㅝ	ㅝ 39		
89	ㅍ		7			ㅑ	ㅑ 4
9	ㅎ		77	ㅓ	ㅓ 47		
			78	{ ㅕ ㅗ	{ ㅕ ㅗ	{ ㅕ ㅗ	{ ㅕ ㅗ
		79	ㅛ	ㅛ 49			
		8	ㅏ	ㅏ 5			
		88	ㅑ	ㅑ 58			
		9	ㅓ	ㅓ 6			

2. 기본기호의 구성

2.1 일반적으로 첫째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 및 둘째음절의 초성만을 숫자기호화하여 이를 합성한다. 세째자리 다음에는 언제나 온점을 찍는다.

예 : 문일평 372.6
황순원 966.5

2.2 대상어의 첫음절에 받침이 없는 것은 모음기호 다음에 숫자 "0"을 첨부한 다음, 둘째음절의 자음기호를 합성한다.

예 : 고재창 150.7
모운숙 350.6

2.3 첫째음절의 초성 또는 중성기호중 두자리숫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세째자리수까지만 표에의해 기호화하고 그 다음은 임의의 숫자를 하나 덧붙여 개별한다.

예 : 나도향 191.2
나채운 191.5
남정현 191.7
권순영 167.5
권오갑 167.7

다만 "최"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4 참조)

2.4 김, 이, 박, 최, 정, 조, 강, 장, 한, 윤의 우리나라 10대성 및 이와 똑같은 첫음절을 가진 기입어(三나 2.3 참조)는, “윤”자를 예외로 하고, 두째음절의 모음까지를 기호화한다. 두째음절에 대한 기호는 조절하지 않은 원표에 의하여 매긴다. “최”자는 모음기호가 두자리이 지만 2.3의 규정을 저촉받지 아니하고, 이 항목에 준하여 매긴다.

예 : 정비석	736.49
조지훈	750.79
최정희	838.73

2.5 이상의 기호매김으로도 同番號異記入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의 자모(예 1) 또는 임의의 숫자(예 2)를 하나 덧붙여서 개별한다.

예 1 : 전재동	732.7
전정렬	732.73
전정진	732.75
예 2 : 휘문고등학교	978.3
휘문중학교	978.4
김도희	184.25
김동리	184.255
김동진	184.257

3. 부차적기호의 구성

표제, 비평자, 역자 및 판차, 권차, 복본 등의 부차적기호는 본장 「가의 3」에 준하여 매긴다. (三다2.1~2.4 참조)

예 : 이광수(李光洙)	
無情	690.16口
사랑	690.16入
사랑의 罪	690.16入5
이은상(李殷相)	
李忠武公一代記	690.57○
성웅 이순신	690.57○ 入
최호진(崔虎鎭)	
經濟原論	838.9573
또는	
	838.95(3)

본장(本章)에서 설명한 「가」와 「나」의 사용법 즉 자모 한자에 숫자기호를 결합하는 방식과 자모를 순수숫자기호화하는 방식은, 제3장의 사용법 즉 음절식기호에 숫자를 합성하는 방식에 비해 기호로서의 助記性과 簡略性(brevity) 그리고 區分性을 갖는 면에 있어 약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음절철 한자에 숫자를 가하는 기호법을 필자의 대표적인 기호법으로 여기고, 본장의 사용법에 의한 기호법은 별로 推奨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그런식의 기호화도, 굳이 원할 경우, 필자 표에 의해 가능함을 실증을 들어 설명하였을 뿐이다.

본장의 사용법에 의한 기호법이 區分性면에 있어 약하긴 하나, 이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Cutter표의 동양서를 위한 전개표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명의 경우, 그보다는 구분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아래표는 동 전개표의 우리나라 10대성을 위한 부분이다. 판기입어에 비해 비교적 세분된 부분이기 對比를 위해 인용하는 것이다.¹⁵

Bag	B147	Jang	J255
" ,G	B148	" ,H	J256
" ,P	B149	" ,S	J257
		Jeong	J462
Choe	C452	" ,D	J463
" ,D	C453	" ,I	J464
" ,H	C454	" ,O	J465
" ,N	C455	" ,U	J466
" ,S	C456	Jo	J567
" ,U	C457	" ,H	J568
		" ,S	J569
Gang	G154	Yi	Y5
" ,J	G155	" ,B	Y51
Gim	G413	" ,C	Y52
" ,B	G414	" ,D	Y53
" ,C	G415	" ,E	Y54
" ,D	G416	" ,G	Y55
" ,E	G417	" ,H	Y56
" ,G	G418	" ,I	Y57
" ,H	G419	" ,J	Y58
" ,I	G421	" ,M	Y59
" ,J	G421	" ,N	Y6
" ,M	G422	" ,O	Y61
" ,N	G423	" ,P	Y62
" ,O	G424	" ,S	Y63
" ,S	G425	" ,T	Y64
" ,T	G426	" ,U	Y65
" ,U	G422	" ,W	Y66
" ,W	G428	" ,Y	Y67
" ,Y	G429	Yun	Y97
Han	H19	" ,M	Y98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의 64.8%를 차지하는¹⁶ 10대성을 가진 기입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정도의 구분 정도도로도 「서울대학교도서관」과 같은 대도서관이 별

15. C.A. Cutter's Three-figure Author Table. Revision for S.N.U. Libr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6-.

16. 이재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人文科學(延大), 第18輯(1967年12月), p. 74.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유일번호(unique number)의 저자기호를 매기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서가목록을 참조해야만 번호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자체는 그다지 세분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특정한 분류항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류항목들에 보편적으로 쓰기 위한 표의 지나친 세분은, 결과적으로 저자기호를 필요이상으로 길게 줄 수 밖에 없는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 예로 표상에 아래와 같이 이미 세분되어 있다할 경우,¹⁷

김도아	711
동	712
동사	713
동식	714
동유	715
동차	716
동화	717

“김동리”(金東里)의 작품이 들어와 “712”란 저자기호를 매기고 난 뒤, “김동민”(金東珉)과 “김동립”(金東立)의 작품이 들어오면, 부득이 “7125”와 “7123”과 같이 한자리를 더 늘려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그다음 “김동인”(金東仁)의 작품이 들어오면 다시 표상의 기호대로 “715”매길 수 있다. 그러나 그뒤 “김동진”(金東鎭)의 작품이 들어오면 또다시 한자리를 표상의 기호보다 늘려 “7156”과 같은 긴번호를 매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대 소설작가중 상기 표상의 기호범위(자모로 김도~김동화) 내에 드는 분은 金稻姬·金東里·金東立·金東珉·金東秀·金東仁·金東鎭 씨등 7명이다. 이들 작가들이 상기 7개의 세자리기호(711~717)내에 들어 충분히 세자리기호를 배정 받을 수 있을 터인데도, 상기 표에 의한 기호매김의 예에서는 들어온 5명중 3명 즉 5분의3을 벌써 네자리수 까지 전개해서 쓰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표자체의 지나친 세분은, 그것이 특정한 분류항목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별 효용이 있는 것이 못되며 오히려 팔각성 있는 기호를 유지하는 데 저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六. 맺는 말

1958년에 발표된 표에 비해 본 논고에서 소개되는 개정표 및 그 사용법상의 큰 변동은 다음과 같다.

본논고에는 1958년 발표의 제1표, 제2표와 더불어 1970년 개정된 제3·4·5·6표 및 그후 추가된 제7·8표 등 도합 8개의 표가 논급되어 있다. 제3표이후 제8표까

지의 제표들은 모두 제2표를 기초로 해서 약간 개정한 것으로서, 각기 따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표이다. 즉 그중에서 자기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것을 취택해 쓰도록 한 것이다. 여섯개의 표가 공통으로 종전의 표와 달라진 점은, 종전에 ㄷ과 ㅈ에 배정된 22(ㄷ)과 81(ㅈ)의 두자리 숫자기호를 2(ㄷ)과 8(ㅈ-7·8표만은 76)의 한자리로 기호로 고치고, 그밖의 두자리 자음기호를 ㄴ 19, ㄷ 29, ㅋ 87(제7·8표만은 77), ㅌ 88(제7·8표만은 78), ㅍ 89(7·8표만은 79)와 같이 조절한 점이다. 이에 따라 모음기호도 약간 조절·변경하여, 종전의 유희번호였던 24부터 29까지와 85부터 89까지의 숫자기호들을 활용시켰다. 이로써, 전체적인 면에서 종전보다 7분의 1가량 숫자기호의 길이를 단축시킨 셈이 된다.

새로 개정된 여섯표의 각표마다의 차이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3표(실용형 가표)와 제4표(실용형 까표) 및 제7표(실용형 하표)의 실용형系의 표는 桌上에서 표에 의해서만 저자기호를 매기지, 실제로는 書架目錄을 별로 참조하지 않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다. 실후 서가목록에 의해 번호를 확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입어(저자)는 다른데 표에 의한 번호는 같을 경우, 먼저 들어온 기입어(저자)에 번호유지의 특권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기입어(저자)가 자모순으로 앞서는 경우에도 번호후가에 의한 개별관계로 부득이 뒤로 놓여지는 씨스름이고, 제5표(아이디얼형 가표)와 제6표(아이디얼 까표) 및 제8표(아이디얼형 하표)의 이 아이디얼系의 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자모순 배열을 기할 수 있는 씨스름이다. 또한 “가표”(제3·5표)와 “까표”(제4·6표) 그리고 “하표”(제7·8표)의 차이는, “가표”는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용이고 “까표”는 이를 별개시하여 「가까나순」의 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용이며, “하표”는 된소리를 별개시하되 그 위치를 “ㅎ” 다음에 놓는 「가하까순」(가…ㅎ, 까…ㅎ순)의 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표의 사용법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기본기호의 문자기호의 음절이 우리나라의 10대성과 같은 것일 경우에는, 대상어의 두째음절의 모음까지를 숫자기호화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째음절의 초성까지만 표에 의해 기호화하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대상어의 첫째자(음절)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외의 받침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호를 표에 의해 매기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임의의 숫자 한자리로 개별토록 규정하였으며; 대상어의 기입요소

17. 張一世, 東洋著者記號表, 서울, 新書閣, 1964. p.3

를 적도록 하였고; 「가나다순」의 제3·5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대상어의 첫자가 된소리일 경우 이를 사자음으로 바꾸어 문자기호로 삼도록 하였다. 또 전 사용법에서는 저자기호의 부차적기호로 표제 등의 첫자를 자모형(초성)으로 취했었는데, 새로 개정된 사용법에서는 자음에 기본모음을 합성한 기본음절(기본자형)만을 취하게 하고 그 자형이 중복되면 그밖에 가서 접차로 받침, 중모음, 중모음+받침을 순차적으로 덧붙여 매기도록 하였다. 표제의 첫자가 같고 두째 이하가 다른 것도 한자(한음절)로 축약시켜 개별토록 하였다. 부차적기호로 자모형 대신 음절형을 취한 것은 시종 “음절식 기호법”(syllabic notation)의 원리에 합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초·중·종성의 자형 전체를 처음부터 다 주지 아니하고 우선 기본자형(대표모음)만 주게 한 것은 필요 이상의 배열의 부담을 부차적인 기호에 주지 않기 위함이다. 또 부차적기호를 매길때 숫자의 발음과 같은 것은 이를 달리 조절하여 매기도록 하였다. 도서기호는 書寫的(視覺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發音的(呼稱的)인 면에서도 개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음절식 문자 한자에 숫자를 합성하는

기호법’ 외에 본논고는 종전의 논고에서 그 가능성이 있음만 비치었던 ‘자모 한자에 숫자를 합성하는 기호법’과 ‘순수 숫자만에 의한 기호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안을 선 보였다. 자모 한자에 순수기호를 합성하는 기호법에는 그의 부차적 문자기호도 자모형을 취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차적인 것에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배열의 부담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기본기호의 구성에는 배열의 능률을 빙자하여 음절식기호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역으로 그의 특성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부차적 위치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이가 있음은 이해키 어려운 일이다.

이로써 필자표에 의한 기호법은, 그 도서관의 목록 기입(entry)이 무슨 방식의 표기법·독법·기입형식에 의거하든, 또 그 배열법이 어떤 방식에 의거하든, 또 그 도서관의 저자기호로서의 기호구성법이 어떤 방식이든—즉 문자와 숫자의 혼합기호이든, 숫자만에 의한 순수기호법이든, 전자의 경우 문자기호부를 음절식으로 취하든, 자모식으로 취하든—또 그 기입어가 인명이든, 단체명이든, 표제이든 또는 일반 주제어이든 간에 상관 없이, 언제나 거기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이 실증된 셈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논고 상편 (1972년 2월호)의 정오표

面	段	行	誤	正
51	左	제4표 ㄱ에 붙는 모음기호	ㄱ 4	ㄱ 4
55	左	上2	가르고	가르키고
55	右	下2	제기한	채기한
56	右	上1	全行을 同面 左段1行의 윗줄로 옮길것	
56	脚註	11번	昭和19[1934]	昭和 9[1934]
57	右	下5	…ㄹ, ㄴ	…ㄹ, ㄴ, ㄴ

또한 p.50 脚註 4의 “한글자모의 생긴 빈도와 숫자에 의한 그의 분석적 합성식 기호화에 대하여”란 논고는 사정에 의하여 「人文科學」誌대신 「延世論叢」第10輯에 발표키로 되었음